

# 배우 조승우 “오페라의 유령”, 배우 2막의 첫장…선물처럼 와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 주역들 출연 소감  
최재림·김주택·전동석 “최고의 ‘유령’ 선사”

배우 조승우와 최재림, 김주택, 전동석 등이 ‘오페라의 유령’ 한국어 공연 주역을 맡게 된 소감을 전했다.

조승우는 27일 제작사 에스엔코를 통해 “배우로서의 2막을 향해 도약해야만 하는 때에 작품이 마치 선물처럼 다가왔다”며 “이 멋진 작품에 누를 끼치지 않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죽어라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생각 뿐”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연처럼 다가가 준, 그리고 기회를 준 앤드루 로이드 웨버 선생님께 감사함을 느낀다. 뮤지컬 배우로 20년 이상을 무대에서 왔는데, ‘오페라의 유령’으로 언제 다시 가면을 쓰고 연기할 수 있겠는가”라며 “무대에 서면서 늘 새로운 것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다. 스스로를 재정의하고 싶은 의지가 강하게 있었는데 초심으로 돌아갈 수 있게 만들어 줄 작품인 것 같아 긴장과 두려움 그리고 기대가 공존한다”고 말했다.

이어 “배우와 작품의 연이라는 건 참 모르겠구나 싶다. ‘오페라의 유령’ 역으로 연기하게 되는 걸 전혀 상상해 본 적이 없다”며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려 한다. 청소년 때 소설과 초연 ‘오페라의 유령’ 역을 맡았던 마이클 크로포드의 OST로 처음 접하고 느꼈던 이 작품의 감동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고, 가장 기본적인 영감으로부터 시작해 보고 싶다”고 전했다.

조승우는 얼굴을 마스크로 가린 채 오페라 하우스 지하에 숨어 사는 천재 음악가 ‘오페라의 유령’ 역을 맡았다. 같은 배역으로 최재림, 김주택, 전동석이 번갈아 연기한다.

최재림은 2009년 25살에 이 작품 오디션에 본 적이 있었다. 당시 앙상블과 라울 커버를 제안 받았으나 함께 하지 못했고, 14년 만에 ‘유령’으로 무대에 서게 됐다. “남자 뮤지컬 배우에게 꿈의 배역으로 꼽히는 ‘유령’ 역을 가장 준비가 된 시점에 맡게 돼 감동적”이라며 “전공이 성악이지만 세미클래식 장르의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어 욕심나는 기회다. 최선을 다해 준비해 최고의 ‘오페라의 유령’을 선사하겠다”고 약속했다.

뮤지컬 첫 도전에 나선 성악가 김주택은 “언젠가 뮤지컬 무대에 서게 된다면 나의 음악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오페라의 유령’이 될 것 같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마치 운명처럼 출연하게 됐다”며 “오페라와 비슷한 점들이 많아서 놀랐다. 올해로 데뷔 13년을 맞는데 그간 오페라에서 갈고 닦은 실력을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다.

전동석도 “처음 봤을 때, 작품의 웅장함에 압도된 기억이 있다. ‘오페라의 유령’은 무언가 끌림이 있었고, 데뷔 때부터 너무나 하고 싶었던 작품이자 역할이었다”며 “대체 언제쯤을까 막연히 기다렸는데 긴 시간이 지나서 찾아와줘 너무나 행복하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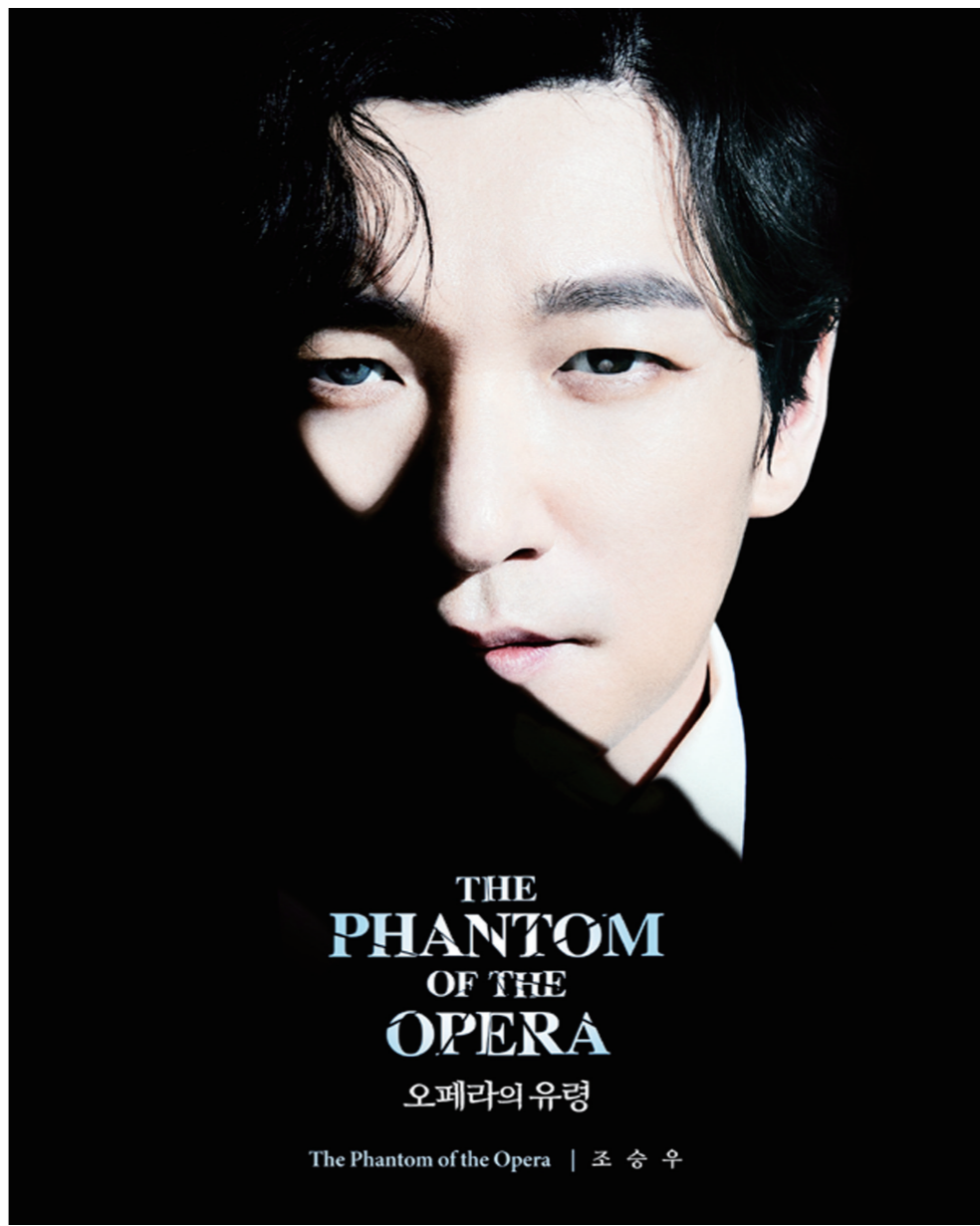
프리 마돈나 ‘크리스틴’ 역에 발탁된 손지수와 송은혜도 설렘을 전했다. 서울대 성악과를 졸업하고 소프라노로 활동 중인 손지수는 뮤지컬에 첫발을 내딛는다. 성악을 전공하고 팜페라 가수로 활동하는 송은혜는 두 번째 작품 만에 주연을 맡게 됐다.

손지수는 “17세에 처음 본 순간부터 언젠가 크리스틴처럼 무대 위에서 노래 부르는 꿈을 꿨는데, 무척 영광이고 기쁘다. 앞으로 크리스틴으로 살아갈 생각에 벌써 마음이 두근거린다”며 “인생 작품이 되길 바라며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송은혜도 “크리스틴을 해볼 수 있다면 죽어도 여한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다녔을 정도로 이 작품을 사랑한다”며 “브래드 리틀 배우와 ‘더 팬텀 오브 디 오페라’ 듀엣을 한 직후 오디션 공고가 올라온 것 자체가 운명 같다”고 밝혔다.

크리스틴을 사랑하는 귀족 청년 ‘라울’ 역의 송원근은 “아직도 얼떨떨하다. 13년 만에 돌아온 작품인 만큼 그 공백의 이유가 될 수 있도록 잘 채워진 공연으로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했고, 황건하는 “인생에서 몇 번 오지 않을 기회라고 생각해 오디션에 모든 걸 쏟았고, 합격 소식이 이불을 덮어쓰고 소리를 질렀다. 오랜 시간 꿈꿔온 작품이기에 가슴의 떨림이 남다르다”고 전했다.

거장 앤드루 로이드 웨버의 명작인 ‘오페라의 유령’은 전 세계 17개 언어, 188개 도시, 1억4500만명 이상 관객이 관람하며 큰 사랑을 받아왔다. 한국어 공연은 내년 3월30일 부산 드림씨어터에서 막을 올리며, 7월에 서울 사뮈엘씨어터에서 개막한다.



## BTS RM ‘인디고’, 美 ‘빌보드200’ 3위로 재진입…韓 솔로 최고

방탄소년단 멤버 중 솔로로 첫 톱10 진입

글로벌 슈퍼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RM(28·김남준)의 첫 공식 솔로 앨범 ‘인디고(Indigo)’가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차트 ‘빌보드 200’에 톱3로 재진입했다. 해당 차트 한국 솔로 가수 최고 성적이다.

26일(현지시간) 빌보드에 따르면, RM이 지난 2일 세계 음원 플랫폼에 공개한 ‘인디고’는 31일 자 빌보드 메인 앨범차트 ‘빌보드 200’에서 역주행하며 3위를 차지했다.

‘인디고’는 지난 17일 자 ‘빌보드 200’에서 15위로 데뷔했으나 24일 자 차트에선 순위권에서 벗어났다. 그러나 지난 16일 실물 CD를 발매한 뒤 8만3000장 상당의 앨범 판매량을 기록하며 이 같은 순위를 차지했다.

방탄소년단 팀으로 ‘빌보드 200’에서 여섯 번 정상에 오른 RM이 솔로로서 ‘빌보드 200’에 진입한 건 이번이 두 번째다. 2018년 10월 발매한 ‘모노(mono)’가 ‘빌보드 200’에서 26

위를 차지한 적이 있다. 특히 방탄소년단 멤버 중 솔로로 ‘빌보드 200’ 톱10에 진입한 건 RM이 처음이다. 방탄소년단은 팀으로 ‘빌보드 200’에서 7개의 앨범을 톱 10에 올렸다.

해당 차트에 방탄소년단 다른 멤버들도 솔로로서 진입했다. 슈가가 어거스트 디(August D)라는 예명으로 발표한 믹스테이프 ‘D-2’가 11위, 제이홉의 첫 솔로 정규 음반 ‘잭 인 더 박스(Jack In The Box)’와 믹스테이프 ‘호프 월드(Hope World)’가 각각 17위와 38위를 차지했다.

RM ‘인디고’의 이번 ‘빌보드 200’ 성적은 해당 차트 한국 솔로 가수 최고 성적이기도 하다. 이전까지 해당 차트 한국 솔로 가수 최고 성적은 그룹 ‘트와이스(TWICE)’ 멤버 나연(27·임나연)이 지난 7월 첫 솔로 앨범인 미니 1집 ‘아이엠 나연(IM NAYEON)’으로 기록한 7위였다.



한편 이번 주 ‘빌보드 200’ 1위는 미국 싱어송라이터 시저(SZA)의 정규 2집 ‘SOS’가 차지했다. 시저가 5년 만에 발매한 정규작인데 최근 드문 R&B 장르로 호평을 듣고 있다. 2주 연속 정상이다.

## YG 떠난 태양·대성, ‘빅뱅’ 활동은 이어질 듯

그룹 ‘빅뱅’ 멤버 중 지드래곤(GD)을 제외한 다른 멤버들이 모두 YG엔터테인먼트를 떠나게 되면서 향후 이 팀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YG는 27일 “GD와 솔로계약을 협의 중이며, 대성은 계약을 종료하고 새로운 출발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 빅뱅 다른 멤버 태양(동영배)이 YG를 떠나 YG 관계 회사인 더블랙레이블에 새 동지를 든다고 밝혔다. 이미 또 다른 멤버 탑은 올해 초 독립했다.

지난 2006년 데뷔해 올해 17년차를 맞은 빅뱅은 ‘거짓말’, ‘마지막 인사’, ‘하루하루’, ‘판타스틱 베이비(FANTASTIC BABY)’, ‘뱅뱅뱅(BANG BANG BANG)’ 등 무수히 많은 히트곡을 배출하며 2세대 K팝 그룹 대표로 통한다.

지드래곤을 중심으로, 멤버들이 직접 작사·작곡에 참여하며 ‘프로듀싱돌’의 문을 열었다는 평을 듣는다. 2017년 탑을 시작으로 지드래곤, 태양, 대성이 차례대로 군에 입대하면서 4년이라는 긴 공백기를 보냈다. 특히 성 스캔들에 휩싸인 승리가 지난 2019년 팀을 탈퇴하면서 타격을 받았다.

하지만 지난 4월 ‘봄여름가을겨울(Still Life)’을 발표해 음원차트를 휩쓰는 등 여전히 저력을 과시했다.

일부에서 향후 빅뱅 팀 활동에 대해 우려하고 있지만 YG는 “태양, 대성이 YG의 가족이자 빅뱅 멤버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언제든지 협력하며 빅뱅 단체 활동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실제 탑도 YG와 전속계약을 종료한 뒤 개인 프로젝트를 가동했다. ‘봄여름가을겨울’에 참여하는 등 여건이 되면 언제든 빅뱅 활동에 합류할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더블랙레이블은 YG 산하였다. 현재 독립 레이블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YG 간판 프로듀서 테디가 이끄는 곳인 만큼 조율만 하면 협업이 가능하다.

YG로서는 빅뱅 브랜드를 놓칠 수 없다. 현재 ‘블랙핑크’를 제외하고 회사를 대표할 수 있는 팀은 사실상 빅뱅밖에 없다. 이런 점을 YG, 멤버들이 잘 알기에 협업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 멤버들이 여러 소속사로 뿔뿔이 흩어져도 팀을 유지하는 1.5세대, 2세대, 3세대 그룹들이 꽤 있다. 국내 최장수 그룹 ‘신화’와 ‘god’가 그런 경우다. 2세대 그룹과 3세대 그룹 중에선 2PM과 갓세븐이 멤버를 소속사가 달라도 팀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

다만 태양이 내년 초 솔로 앨범을 발매하는 등 당분간 빅뱅 멤버들은 솔로 활동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 박수홍 “우리사랑, 색안경 끼고 보신 거 안다…아내 그런 사람 아냐”



개그맨 박수홍(52)이 23세 연하 김다에(29)와의 러브스토리를 공개했다.

지난 26일 방송된 TV조선 예능물 ‘조선의 사랑꾼’에서는 박수홍·김다에 부부의 이야기가 담겼다.

이날 제작진이 ‘남편 자랑을 해달라’고 청하자, 아내 김다에는 “이렇게 희성적이고, 선한 사람 처음 본다. 항상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고 말했다. 박수홍은 “(아내가) 나를 늘 안쓰러워

TV조선 예능물 ‘조선의 사랑꾼’

하고, 쟁겨준다. 좋은 음식점도 아내와 처음 가보고, PT도 처음해보고, 피부과 가서 점도 빼봤다”며 고마워했다. 이에 김다에는 “본인이 열심히 살았지만 누리지 못한 게 안쓰러웠다. 본인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걸 다 해보면 어떻게 됐냐고 제안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박수홍은 “우리 사랑을 의심하고 색안경 끼고 보셨던 것 같다. (아내) 절대 그런 사람 아니다. 돈 관리 제가 하고 있으니 걱정말라”고 일침했다.

두 사람의 첫만남은 1타워의 한 자선행사 현장이었다. 김다에는 그날 박수홍 후배 여자친구의 지인으로 참석했다. 박수홍은 김다에의 첫인상에 대해 “되게 쌀쌀 맞았다”고 떠올리며 “내가 나쁜 인상이 아니니 (사람들이) 먼저 말을 거는데, 이 친구(아내는) 얌전히 있더라. 말을 걸었는데도 웃지 않았다. 근데 그 모습이 계속 기억에 남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후배한테 ‘네 여자친구 옆에 있던 분이랑 다음에 밥 한 번 먹자해서 자연스럽게 만났다. 그 후로 아내가 1년 가까이 마음을 안 열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기사 노릇만 했다. 매

번 차도 한 번 못 마시고 데려다주기만 했다. ‘진짜 치사하고 더러워서’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또 기사 노릇을 하고 있더라”라고 회상했다. 김다에는 박수홍과의 첫만남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김다에는 “첫만남 때는 관심 있게 보지를 않았다. 그냥 스쳐지나간 1인”이라고 해 박수홍을 당황케 했다. 이어 “오펜 말로는 (내 첫인상) 차가웠는데 다음에 뵈어서 만나니까 웃는 모습을 보고 ‘차가운 애가 아닌가?’ 생각했다고 하더라. 사실 두 번째 만남에는 (박수홍이) 나오는 줄 몰랐다. 인니가 밤 먹자고 해서 나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때가 27세였다. 한참 인기 많을 나이에 (박수홍을) 봐서 딱히 관심이 없었다. 그런데 내가 아는 연예인의 이미지와는 다르게 사람이 되게 순박하더라. 처음엔 잘 해주는데 다음날 일찍 일어나야 돼서 밥도 못 먹고 안녕했다. 나중에 그게 서운했다고 얘기하더라. 나를 진심으로 좋아하는지 몰랐다. 어느 순간 1년을 그렇게 하니가 ‘진심인가?’ 생각했다”고 전했다.